

# 정 정 신 고 (보 고)

2018년 8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2월 1일

3. 정정사항

## 가. 환헤지 전략, 위험관리 문구 정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 리	변경 전1)	변경 후1)
요약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 리	변경 전 2)	변경 후 2)

변경 전1)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헤지 하고자 합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헤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헤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환헷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왑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환헷징을 하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헷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에 대하여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변경 후1)

####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 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 환위험 관리

##### 1) 환헷지 여부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헷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헷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2) 환헷지 방법 및 목표 헷지비용

-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 이상(최대 100% 수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헷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환헤지비용 등

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변경 전2)

<p>헷지위험</p>	<p>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하고자 합니다.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 2 부 “ 9. 가.(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 2</p>

	<p>부“ 9. 가. (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p>
--	---

## 변경 후2)

<p>환율변동위 험</p>	<p>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헷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비율은 환헷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헷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헷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헷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헷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헷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p> <p>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환헷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p>
--------------------	--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8.1 )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 코드 : AF135 )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b>
1	2	3	4	5	6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b> 이 투자 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 본 문 ]

간이